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549>

JCCT 2023-9-68

대구지역 창업생태계에 대한 창업자들의 인식

Perception of Entrepreneurs on the Startup Ecosystem in the Daegu

김대건*, 배성현**, 김정훈***, 주기중****

Kim Dae-Geun*, Bae Sung-Hyun**, Kim Jeong-Hun***, Ju Ki Jung****

요약 창업생태계와 관련된 주된 논점은 창업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창업생태계가 구축된 환경에서는 창업기업이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창업생태계구축운영사업의 결과를 활용하여 창업생태계의 핵심적인 구성원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대구지역 창업생태계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분석을 실시하여 창업기업이 속한 창업생태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창업인프라의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게 분류되었고, 재무(투자 및 지원)과 인적자원 확보의 중요도와 만족도가 낮게 제시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구광역시 창업생태계에 대한 창업자 관점에서의 인식을 확인하였고 지역 창업생태계에 대한 개선점 및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어 : 대구, 창업생태계, 창업가, 중요도-만족도 분석, 우선순위

Abstract The main point related to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is that in an environment where a good entrepreneurial ecosystem has been established, startup companies can generate good results.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perception of entrepreneurs regarding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in the Daegu by conducting an analysis of importance and satisfaction towards the Daegu entrepreneurial ecosystem, using the results of the Innovation Entrepreneurial Ecosystem Establishment and Operation Project of the Daegu Creative Economy Innovation Center, which is a key member of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the entrepreneurial infrastructure were classified as high, while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finance (investment and support) and securing human resources were shown to be low.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confirmed the perception of entrepreneurs regarding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 in Daegu and provided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regional entrepreneurial ecosystem and policy directions.

Key words : Daegu, start-up ecosystem, entrepreneurs,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priority

*정회원, 계명대학교 벤처창업학과 조교수 (제1저자)
**준회원,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참여저자)
***준회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매니저 (참여저자)
****정회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본부장 (교신저자)
접수일: 2023년 7월 15일, 수정완료일: 2023년 8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1일

Received: July 15, 2023 / Revised: August 16, 2023

Accepted: September 1, 2023

****Corresponding Author: jukj@ccei.kr

Startup Support Headquarters, Daegu Center for Creative Economy & Innovation, Korea

I. 서 론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는 맹자의 어머니가 교육을 위해서 세 번이나 이사했다는 말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창업환경도 이와 다르지 않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성과를 내는데 창업자 개인의 역량도 크게 작용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가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옥토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열 배, 삼십 배, 백배의 열매를 맺는 것같이 창업기업도 어떤 창업생태계에 놓이는가에 따라 성장의 시간, 노력의 투입, 성과의 규모가 달라진다. 즉, 구축된 창업생태계의 수준에 따라 창업가나 창업기업의 성과가 달라지며, 창업생태계는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창업기업이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창업생태계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고려하여 각 주체가 협업할 수 있어야 한다[2].

창업생태계의 이해관계자 각 주체가 협업하고 만족하는 창업생태계를 위해서는 각 주체의 요구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생태계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원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등 넓은 의미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의 틀을 활용하여 자신이 속한 창업생태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창업자 관점에서 창업생태계의 개선점과 우선순위 등을 발견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1. 선행연구 검토

자연생태계 이론을 기업에 처음 도입한 Moore(1993)는 기업생태계를 조직 혹은 개인에 기반한 상호작용하는 경제공동체로 정의하고 있다[9]. 기업생태계는 원재료에서 최종재화까지 이어지는 공급사슬 전반에 참여하는 주체로 상호 의존적으로 진화해 나간다[2]. 기업생태계는 창업기업 영역으로 연구가 확대되면서 벤처생태계, 스타트업생태계, 창업생태계, 기업가정신생태계, 기업가적생태계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어 왔고[4], 본 연구에서는 용어를 창업생태계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창업기업은 행위자와 환경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창

업생태계를 구성하는 행위자와 이에 영향을 주는 환경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으며[4],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외부 요인 중에서 창업환경과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Isenberg(2011)는 창업생태계의 환경적 요인을 정책, 금융, 문화, 지원, 인적자본, 시장과 같은 6가지 요인으로 제시하였다[1]. Stam(2015)은 창업생태계의 핵심이 되는 창업가를 둘러싼 공공기관, 창업문화, 물리적 인프라, 창업자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수요와 같은 프레임워크와 네트워크, 리더십, 자금, 역량, 지식, 지원서비스 등의 시스템으로 창업생태계가 구성된다고 설명하였다[10]. 김영환 외(2020)는 창업가 개인의 성과는 자금, 교육, 문화, 창업지원정책, 지원조직, 지식인프라, 시장 및 규제와 같은 성과창출을 위한 환경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는 혁신창업생태계의 구성요소와 기업가적 성과창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3].

아산나눔재단(2021)은 국내 창업생태계에 대해 창업 대중화의 실현에 성공했지만, 창업의 내실화와 고도화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11]. 이는 정부의 지원이 예비와 초기창업에 집중되어 있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고학력 전문창업이나 첨단기술분야 창업이 저조하며, 부처 및 지자체별 유사지원사업의 증가로 창업지원의 혼란 가중이 원인이라고 진단하였다. 많은 연구들이 창업생태계가 창업기업을 양산하고,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창업생태계가 좋은 곳이 성공한 창업가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아니면 성공한 창업가가 좋은 창업생태계를 만들어내는지 그 원인과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고[1], 창업생태계에서 로컬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로컬의 범위에 대한 영역적 범위의 정의가 부족하며[4],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일관성과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점[7]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지금까지의 창업생태계 관련 연구는 외부의 지원이 없이도 성장이 가능한 지속가능성이나 경쟁과 실험을 통해 발전하는 진화성 그리고 외부에 종속되지 않고 생태계 내에서 하나의 지배적 요인에 구속되지 않는 자치성과 같은 생태계의 기본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2].

창업생태계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제안하는 요인 가운데 가치는 연구 주제나 국가, 지역이 처한 환경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나 창업생태계의 핵심적인 주체는 창업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창업자가 속한 국가나 지역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인식은 여러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창업정책의 수립과 지원제도의 개선, 대학 등 교육기관의 역할, 엔젤이나 VC 등 투자자의 참여, CVC나 대기업과 같은 회수시장의 활성화 등에 유의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창업생태계의 핵심 주체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창업가를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창업생태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대구지역으로 한정하고, 시간적 범위는 사업을 시작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도구는 Martilla and James(1977)가 제시한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을 활용하였다[8]. 이 방법은 중요도를 Y축으로 하고 만족도를 X축으로 하는 사분면의 지도위에 연구하고자 하는 요인이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파악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전략의 수립에 사용된다. 가령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제1사분면은 유지관리영역으로 이에 해당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현재의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제3사분면은 개선대상영역으로 이에 해당하는 요인은 중장기적으로 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제2사분면은 중점개선영역으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자원의 투입에 우선순위를 두고 개선해야 하는 영역이다.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가 높은 제4사분면은 과잉투자영역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높으므로 자원배분에서 후순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그림 1. IPA 방법론
 Figure 1. IPA methodology

이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창업생태계의 구성 요인은 이우진 외[6]의 연구를 활용하였다. 이들은 지역창업생태계활성화를 위한 측정지표의 개발과 창업인프라의 성과측정 및 핵심성과지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창업생태계 측정지표와 창업인프라의 성과측정과 핵심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들은 연구에서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GEM), 글로벌기업가정신트렌드리포트(GETR), Stam[10] 등의 연구에서 제안된 창업생태계 구성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창업생태계를 측정하는 지표를 설계하였다. 이들이 개발한 도구는 창업지원정책, 투자 및 지원, 창업문화, 시장진출, 인적자원확보, 창업인프라, 지식확보와 같은 7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은 정량적 항목과 정성적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연구에서는 이우진 외[6]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측정도구 가운데 정성적 항목을 측정도구로 활용하였다.

표 1. 창업생태계 구성요인에 대한 측정도구
 Table 1. Measuring tools for the components of the startup ecosystem

구분	측정도구
창업지원 정책 (1. 정책)	1.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역 창업기관의 지원 의지가 높다.
	2. 창업지원프로그램이 기업운영에 도움이 된다.
	3.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신청 등 참여가 용이하다.
투자 및 지원 (2. 재무)	4. 지역에서 IR 행사 등을 통한 투자유치가 원활한 편이다.
	5. 창업단계에서 충분한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창업문화 (3. 문화)	6. 위험을 감수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7.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수용해주는 편이다.
	8. 성공한 창업자를 대우해주는 편이다.
	9.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10. 성공한 창업자에게 우호적인 편이다.
시장진출 (4. 시장)	11. 창의성과 혁신성이 지역 저변에 자리잡고 있다.
	12. 창업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이 용이하다.
	13. 창업기업의 신규시장 진입이 용이하다.
	14. 창업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다.
인적자원 확보 (5. 인적자원)	15. 주변에는 창업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16. 창업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17. 창업파트너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창업인프라 (6. 지원)	18. 창업지원기관을 방문하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소개받을 수 있다.
	19.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멘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20. 창업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
	21. 창업 관련 행사가 자주 열리는 편이다.

구분	측정도구
지식확보 (7. 지식)	22. 창업에 필요한 새로운 연구나 기술에 접근할 기회가 있다.
	23.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을 기회가 있다.
	24.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창업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5.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창업기반이 조성되어 있다.
전반적 만족도	26. 창업활성화를 위한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표 1의 측정도구를 설문지법으로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지는 각 요인의 측정도구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가 높으면 7점에 가깝게, 그렇지 않으면 1점에 가깝게 응답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설문지에는 성, 연령, 학력 등 응답자 관련 문항과 업력, 업종 등 창업기업 관련 문항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하였다.

III. 분석 결과

1. 자료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자료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21년 창업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구지역 소재의 창업지원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간 창업지원 사업 수혜를 받은 창업기업 2,184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2022년 6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휴폐업, 연락두절, 응답거부, 설문중단 등 제외한 826개 기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2. 자료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data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631	76.39
	여자	195	23.61
연령대	20대	89	10.77
	30대	248	30.02
	40대	308	37.29
	50대	147	17.80
	60대 이상	34	4.12
학력대	고졸	59	7.14
	초대졸	81	9.81
	대졸	397	48.06
	석사	179	21.67
	박사	98	11.86
	무응답	12	1.45

구분	빈도	비율	
사업 형태	개인사업자	358	43.34
	법인사업자	468	56.66
업력	1년	113	13.68
	2년	138	16.71
	3년	177	21.43
	4년	151	18.28
	5년	122	14.77
	6년	62	7.51
	7년	63	7.63
업종	제조업	417	50.48
	정보통신업	274	33.17
	기타서비스업	88	10.65
	사업지원기업	12	1.45
	교육서비스업	26	3.15
	예술/스포츠 관련 사업	9	1.09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를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 631명(76.39%) 여자 195명(23.61%)으로 나타났으며, 설문문에 참여한 연령은 청년층인 20대(89명, 10.77%), 30대(248명, 30.02%)이며, 중장년층인 40대(308명, 37.29%), 50대(147명, 17.80%), 60대 이상(4명, 4.12%)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자 형태에 대한 응답은 법인사업자(468개사, 56.66%), 개인사업자(358개사, 43.34%)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2. 기술통계량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2021년 창업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826개 자료 전체의 분석 외에도 청년과 중장년으로 나누어 각 요인의 평균, 표준편차의 요약지표를 확인하였다.

먼저 826개 전체창업기업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창업지원 정책이 평균 5.21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시장 진출, 시장진입, 네트워크 형성 등의 시장 진출 창업생태계는 4.115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대~30대 창업자 또한 창업지원정책(5.326)이 잘 조성되어 있다는 결과값을 제시하였다. 다만, 40대~60대 중장년층 창업기업의 시장진출 생태계 기술통계량이 가장 낮은 평균값(3.910)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조사에 참여한 중장년층이 인식하는 대구지역의 창업기업 제품판로나 시장진입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 창업생태계 구성요인의 기술통계량(전체)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startup ecosystem components (total)

요인	전체		
	M	N	SD
1. 정책	5.212	826	1.395
2. 재무	4.433	826	1.520
3. 문화	4.661	826	1.163
4. 시장	4.115	826	1.435
5. 인적자원	4.295	826	1.315
6. 지원	4.555	826	1.384
7. 지식	4.334	826	1.457
전반적만족도	4.482	826	1.585

표 4. 창업생태계 구성요인의 기술통계량(청년)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Entrepreneurship Ecosystem Components (Youth)

요인	청년		
	M	N	SD
1. 정책	5.326	337	1.465
2. 재무	4.699	337	1.604
3. 문화	4.844	337	1.242
4. 시장	4.413	337	1.567
5. 인적자원	4.495	337	1.439
6. 지원	4.748	337	1.537
7. 지식	4.553	337	1.606
전반적만족도	4.712	337	1.661

표 5. 창업생태계 구성요인의 기술통계량(중장년)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of Entrepreneurship Ecosystem Components (Middle-aged)

요인	중장년		
	M	N	SD
1. 정책	5.133	489	1.341
2. 재무	4.251	489	1.432
3. 문화	4.535	489	1.089
4. 시장	3.910	489	1.299
5. 인적자원	4.157	489	1.204
6. 지원	4.423	489	1.253
7. 지식	4.183	489	1.326
전반적만족도	4.323	489	1.512

3. IPA 분석 결과(중요도-만족도 분석)

대구지역 창업생태계에 대한 창업자들의 인식을 IPA 분석을 통해 조사에 참여한 전체창업기업(826개사), 청년창업기업(337개사), 중장년창업기업(489개사)의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2는 전체창업기업 82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IPA 분석결과를 나타낸 결과값으로 X축의 만족도 평균

4.515와 Y축의 중요도 평균 0.143을 중심으로 4개의 분면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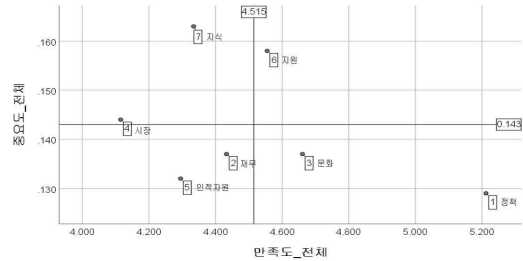


그림 2. 창업생태계 중요도-만족도 분석결과
 Figure 2. Startup Ecosystem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Result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창업생태계 구성요인 7개 속성을 중요도와 만족도로 구획한 4개의 분면에 배치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제1사분면에는 지원(창업인프라)이 배치되었다. 즉, 본 조사에 참여한 창업자는 대구지역의 창업지원기관의 중요성과 멘토, 인프라 등이 창업활동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 또는 프로그램의 지원체계에 만족하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제3사분면 재무(투자 및 지원), 인적자원(인적자원확보)이 배치되었다. 이는 지역에서 IR행사 등을 통한 투자유치가 활발하지 않다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속성을 의미한다.

셋째, 높은 만족도에 비해 낮은 중요도를 나타내는 제4사분면에는 정책(창업지원정책)과 문화(창업문화)가 배치되었다. 본 결과를 해석해보면, 지역 창업자는 비교적 대구광역시의 창업지원기관의 지원의지와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 큰 만족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 창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인식을 못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구광역시의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이 존재하며, 중복사업 및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은 본 조사에 참여한 창업기업 중 청년창업기업 33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IPA 분석결과를 나타낸 결과값이다. X축의 만족도 평균 4.726과 Y축의 중요도 평균 0.143을 중심으로 4개의 분면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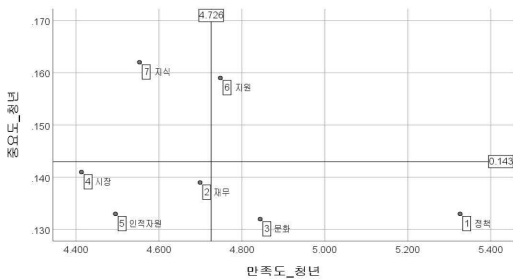


그림 3. 청년창업자 창업생태계 중요도-만족도 분석결과
Figure 3. Young Entrepreneurs' Startup Ecosystem Importance - Satisfaction Analysis Result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제1사분면에는 지원(창업인프라)이 배치되었다. 전체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IPA분석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둘째,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제3사분면 재무(투자 및 지원), 인적자원(인적자원확보) 그리고 시장(시장진출)이 배치되었다. 시장진출에 대한 대구지역의 생태계와 중요도가 낮다는 것은 청년창업자의 경우 부족한 창업 네트워크, 제품 또는 서비스의 미완성으로 인해 시장 진출보다 고도화를 우선시하는 상황으로 발생하는 결과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충분한 시장 검토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상황보다 제품 및 서비스를 먼저 개발하고 시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으로 중요도-만족도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4는 본 조사에 참여한 중장년창업기업 48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IPA 분석결과이다. X축의 만족도 평균 4.37과 Y축의 중요도 평균 0.143을 중심으로 4개의 분면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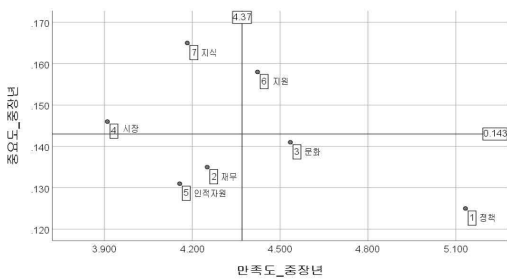


그림 4. 중장년창업자 창업생태계 중요도-만족도 분석결과
Figure 4. Middle-aged entrepreneurs' startup ecosystem 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result

첫째, 제1사분면에는 전체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과 동일한 지원(창업인프라)이 배치되었다. 즉, 본 조사에 참여한 모든 창업기업은 대구지역의 전반적 창업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고, 창업활동에 있어 지역의 창업인프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속성을 나타내는 제3사분면에서는 재무(투자 및 지원), 인적자원(인적자원확보)이 배치되었다. 본 결과값은 청년창업기업에서도 나타나는 속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결론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공한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창업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 창업가는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주체로 생태계 내에서 다른 이해관계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하는데 이들의 성장은 창업생태계를 진화발전 및 지속시켜 자체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점에서 창업가들이 속한 창업생태계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의 지원정책과 프로그램, 적시 투자 및 인력 공급의 가능여부,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시장의 가능여부에 대한 창업가의 인식을 파악하여 어떤 부분을 수정하고 강화해 나가야 하는지 등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창업생태계에 대한 창업가의 인식을 분석한 이 연구는 좋은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로부터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7개 요인을 조사하여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등 여러 창업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중요도의 평균은 0.143, 만족도의 평균은 4.515로 이 값을 중심으로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7개 요인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그 분포를 보면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제1사분면(유지관리영역)에는 자원요인이,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은 제2사분면(중점개선영역)에는 시장요인과 지식요인이 분포하였다.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제3사분면(개선대상영역)에는 재무요인과 인적자원요인이 분포하였으며,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는 높은 제4사분면(과잉투자영역)에는 정책요인과 문화요인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볼 때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요인은 시장요인과 지식요인으로 창업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새로운 기술에의 접근성 향상, 기술이전기회 확대, 새로운 기술도입에 대한 지원 등이다. 그리고 창업가들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나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창업문화의 저변도 잘 갖추어진 것으로 인식한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기회의 확대와 창업기업에게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과 중장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시장요인이 청년은 중점개선영역에, 중장년은 개선대상영역에 분포된 것을 제외하면 전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과 중장년 즉, 연령대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중장년은 청년보다 살아온 기간이 길고 다양한 경험이나 네트워크를 통해 시장에 침투할 기회가 많으며, 네트워크나 경험이 부족한 청년보다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창업가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 차이가 있어서 창업생태계의 수준을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자본의 규모나 자금의 출처 및 조달의 방법이 다르고, 제품과 서비스, 거래 대상, 유통경로 등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또한 창업가의 역량이나 네트워크, 창업생태계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이해관계자와의 강도 수준도 다르다. 이 연구결과의 적용에서는 이처럼 창업가 및 창업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한 국가나 지역에서 완벽한 창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이 연구의 결과가 현재 창업생태계의 주소를 파악하고 자원과 역량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1] Isenberg, D., "The entrepreneurship ecosystem strategy as a new paradigm for economy policy: principles for cultivating entrepreneurship", Babson Park, May 2011.
- [2] Kim Seonmin, "A Stakeholder Analysis in Entrepreneurial Ecosystem",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AJMAHS)*, Vol. 9, No. 3, pp. 757-767, March 2019. DOI:http://doi.org/10.35873/ajmahs.2019.9.3.071
- [3] Kim Younghwan, Kim Sunwoo, Lee Yoonjun, Lee Jungwoo, Jeon Jieun, Kim Jieun, Hwang Eunhye, Hong Jungim, Jin Wooseok, Lee Taejun, "Inovative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Ecosystem Monitoring(6th)",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STEPI), December 2020.
- [4] Koo Yangmi, "Entrepreneurial Ecosystems: Key Concepts and Economic Geographical Implications",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ol. 25, No. 1, pp. 1-22, March 2022. DOI: https://doi.org/10.23841/egsk.2022.25.1.1
- [5] Lee Ilbum, Kang Minjeong, Kim Jiwoong, "The Effects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f the Founders' on Startup Succes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Trust in the Business Model",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1, pp. 361-370, January 2022.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2.8.1.361
- [6] Lee Woojin, Kim Dohyeon, Kim Jongsung, Oh Hyemi, Kim Gayoung, "Development of analysis models and indicators related to revitalization of the local startup ecosystem and establish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ocal startup infrastructure", Korea Institute of Startup &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June 2019.
- [7] Malecki, E. J.,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ecosystems", *Geography Compass*, Vol. 12, No. 3, January 2018. DOI: https://doi.org/10.1111/gec3.12359
- [8] Martilla, J. A., and James, J. C.,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Vol. 41, No. 1, pp. 77-79, January 1977. DOI: https://doi.org/10.2307/1250495
- [9] Moore, J. F., "Predators and prey: a new ecology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Vol. 71, No. 3, pp. 75-86, May-June 1993.
- [10] Stam, E., "Entrepreneurial ecosystems and regional policy: a sympathetic critique", *European Planning Studies*, Vol. 23, No. 9, pp. 1759-1769, June 2015. DOI: https://doi.org/10.1080/09654313.2015.1061484
- [11] THE ASAN NANUM FOUNDATIO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for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Startup Ecosystem", June 2021.